

김상길(시인)



처음부터 보석을 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살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조그만 공장을 하는 남편의 얼굴에 늘어나는 그늘을 보면서 석이 엄마는 뭔가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을 찾다가 몇 개 안 되는 결혼 예물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

결혼 10년, 아직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지만,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보석류는 없지만 몇 개 안 되는 반지와 목걸이를 언제나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행복을 가꾸어 가고 있었습니다. 석이 엄마는 화장대 서랍에서 아끼고 아끼던 반지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. 언젠가 모임에 갔다가 진주목걸이를 한 친구를 보며 ‘내가해도 잘 어울릴 텐데...’ 하고 중얼거렸던 일이 생각났습니다. 왜 얼마 되지도 않은 결혼 예물을 팔려고 할 때 그일이 생각났는지 모릅니다.

석이 엄마는 예물을 꺼내 놓고 또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. 없는줄 알면서도 뭐라도 뒤져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. 장롱 서랍도 끝까지 빼보고 겨울 옷 호주머니도 뒤져 보았습니다.

그러다가 책꽂이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. 결혼 사진 앨범 옆에 조그만 종이 상자가 보였습니다. 무심코 열어 보던 석이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.

그 안에는 남편이 결혼 전과 신혼 초기에 보냈던 카드며 메모지가 빛을 뽐고 있었습니다.

“당신보다 귀한 선물은 없소. 이런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.”

- 구주 나신 날에 민 -

“생일을 축하하오. 이런 생일 축하카드를 한 70장만 더 썼으면 좋겠소.”

- 너무 좋은 날에 민 -

이런 내용이 담긴 카드와 메모지였습니다. 석이 엄마는 그것을 방바닥에 놓고 한참을 읽었습니다.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.

이런 보석이 있는 한 다른 패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, 그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팔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‘최후의 보석’ 이었습니다. 석이 엄마는 그 보석을 끌어안았습니다. 왕관을 썼던 영국 왕세자비가 부럽지 않았습니다. 그 보석의 광채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.



◀그때 그랬지 ▶ 이 수 근 탈출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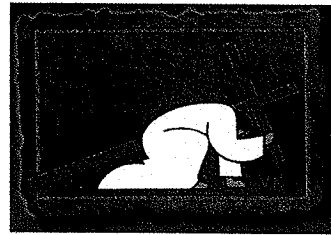
판문점 회의 도중 유엔군 수석대표의 승용차를 타고 탈출하여 남한에서 대대적 환영을 받았던 이수근. 지금의 수 억원쯤 되는 천 만원의 정착금을 받고는 여교수와 결혼도 하고 반공교육을 위한 강연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갖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몇 년 후 콧수염과 가발로 위장하여 다시 북한으로 가려했다는 위장간첩이었다고 하여 사이공에서 붙잡혀 돌아와 사형당했습니다. 양쪽이 칼날 끝 같이 대치하고 있던 우리민족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.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(마7:8)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8권 38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6년 9월 24일
☎ 369-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, www.calvary.org.nz		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

성지순례

김성국



주님!
당신 사셨던 곳 찾지 않아도
무심타 말아주세요.

내 곁의 사람들이
몽롱해진 손 마디와
고랑처럼 주름 패인 얼굴로
썰물같이 밀려진 삶
다시 채워 달라고 엮드린 자리가
내겐 너무 눈물겹습니다

가끔씩
주님 발 끌고 가신
그 길 나도 찾고 싶어진다면
오늘도 내일도
구차한 마음 추스르며
언어와 인종의 모욕감 참고 걷는
내 곁의 사람들 발걸음 생각하겠습니다.

그러다가
누군가
아직도 안 다녀왔냐고 묻는다면
이렇게 말할 겁니다.
“내 살아가는 곳
어딘들 주님 앞이 아닐까요?”

그리고는 훗날
내 마을 함께했던 그 자리
성지 순례하듯
가슴 설레며 돌아보겠습니다.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
교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
교회가 되어야 한다
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의
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
남이 곤란함에 빠졌을 때
그것을 꼬소해 해서는 안 된다.
하나님께서 그 곤란함의 기분이
어떤 것인지
친히 체험하게 해 주실지도 모른다

주일예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y	Calvary	다 같이
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도자
*찬송 Hymn	9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33(시150편)	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도자
찬송 Hymn	361장	다 같이
기도 Pray		권용일 안수집사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출애굽기20:7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십자가 성가대
설교 Sermon	심계명(3) "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"	김성국 목사
찬송 Hymn	91장	다 같이
헌금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응답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"더 큰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금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"
-성전건축헌금 드린 교우의 헌금 봉투에서-

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:\$260 총액:\$139,965


◆10월 예배위원◆

일자	기도	차량	안내
24	권용일	정덕수	본당: 김순자
1	김순자	최재학	정희자
8	김영길	고성일	현관: 김교섭
15	노은숙	권용일	최재학
22	백재성	백재성	새교우: 이광희
29	양경배	이근평	이근평장유진

◆10월의 교회력◆

주 일	예배와 모임
1	월초새벽기도회(1) 특별새벽기도회(2-7) 살롬, 익투스 찬양(4) 구역예배(6: 추석모임)
8	믿음의 어머니기도회(10)
29	이삭줍기주일

『교회생활』 2006년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	『교회등록』 *3주간 예배, 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
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12:30분 수요예배: 7:30 pm	새벽기도회: 금 5:55 청년부: 토 오후 5시

- 교우소식.
<수술 후 회복 중> 김소연 권사. 교우들의 기도로 수술 잘 되어 회복중에 계십니다. Auckland Hos, Ward 77. 6호실
- 미주한인장로회 남태평양노회 정기노회
*<일시> 9월 29일(금) 오전 11시. 임마누엘교회.
- 미주한인장로회 남태평양노회 연합 1일 부흥회
<일시> 9월 29일(금) 저녁 7:30분 <장소> 주님의교회
<강사> 송병기 목사(뉴욕 양문교회. 미주한인장로회 총회장)
*미국의 이민교회와 고국에서 부흥회를 자주 인도하시는 목사의 말씀, 우리 삶의 형편에 맞는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.
- "특별새벽기도회" (예고) <일시> 10월 2일(월)-7일(토).
새벽 5:55분(예배당 문 Open 5:20분)

*2004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리스트 문대성 선수
경기 후 "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" 는 나의 말에 선배는 내게 말해주었습니다
"그런 말 하지마라. 경기 후 전세계 60억인구가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 샀기에 너는 그 이상의 영광을 안겨드렸다"
- 학생부 수련회 <일시> 9월 29일(금)-10월 1일(주일)
<장소> Karanga Camp. 79 Te Henga Rd. Bethells(Swanson)
*과히 멀지 않은 곳입니다. 가능한 부모님들의 차량 Pick up 부탁드립니다.
*금,토 이틀 중 한끼 식사 자원봉사(1~4여선교회) 기다립니다(문의: 김순자 권사)
- "우리 교회 우리 손으로,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를"
*훗날, 교회장소 얻는 문제를 겪고 난 이민선조들의 수고를 기억할 후손들에게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.

◀착한 시인들▶ 묵상 기도

용혜원

아무런 소리도
내지 않았는데
마음엔 커다란
음성이 들려왔다

그리고
기쁨이
평안이 가득해졌다

